

# 創立 20周年記念 국제學術 심포지움

## 致 辭

서울대총장

권 이 혁

親愛하는 심포지움 參席者 여러분

本人은 오늘 서울大學校 新聞研究所 創設 20周年을 기념하여 金 圭煥 所長의 主宰下에, Schramm 博士 등 國內外碩學들을 모시고 이 심포지움을 가지게 된 것을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생각컨데, 커뮤니케이션이란 個人 또는 社會 사이의 가장 基本的인 相互作用이며, 社會를 維持·發展시키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社會過程인 것입니다. 人類의 모든 文化內容이 人間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生成되고 發達해 왔던 것임을 상기할 때, 우리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現象에 대하여 社會科學的 研究의 關心을 傾注한다는 것은 至極히 當然하고 必要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서울大學校 新聞研究所는 우리나라에 커뮤니케이션 科學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現象 研究의 必要性을 누구보다도 먼저 認識하고,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國內 最初의 專門的 研究機關으로서 1963年 本校에 設立되었습니다. 新聞研究所는 그 동안 設立 初創期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변 輿件과 環境의 變化에 적응해 오면서, 차분한 成長의 道程을 걸어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法制的이고 歷史的 接近方法이 主流를 형성하고 있던 韓國의 커뮤니케이션 學界에, 서울大學校新聞研究所에 의하여 처음으로 科學的·實證的 研究方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內容分析和 意識調查 등의 實證的 研究풍토가 造成되었던 것은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 學史에 하나의 劃期的인 이정표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新聞研究所는 設立 직후부터 매년 機關誌「新聞研究所 學報」의 發刊과 各種의 學術 研究發表會 및 심포지움의 開催 등 學術 研究事業과 外國의 著名한 研究機關과의 긴밀한 學術 交流를 통하여 國際的인 研究協力體制를 유지해 오므로써,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 科學의 成熟과 土着化를 위하여 水準높은 努力을 아끼지 않는 한편, 韓國 言論人들의 職業的資質 向上을 위한 言論人 再教育事業을 遂行하는 등 그 貢獻은 실로 至大하다고 評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新聞研究所는 1963年 舊東崇洞 캠퍼스에서 서울大學校 직속 法定研究所로 出帆한 후, 新聞大學院의 創設에 따라 1968年에 新聞大學院의 附設機關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이어 1975年 社會科學大學 新聞科學의 新設에 즈음하여 社會科學大學 附設機關으로 개편되었으나, 1982年 다시금 서울大學校 直屬 研究機關으로 昇格되었습니다. 新聞研究所의 승격은 커뮤니케이션 科學이 포괄하는 研究領域의 廣範함과, 隣接科學으로부터의 理論 및 研究過程에의 폭넓은 參與의 必要性, 그리고 國際的 學術交流의 增大의 要請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發展過程을 거쳐 오는 동안, 金圭煥 所長을 비롯한 여러 關係者들의 熱意를 바탕으로 新聞研究所가 國內外的으로 注目받을만한 研究業績을 축적해 왔다는 事實을 本人은 여러분과 더불어 경하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新聞學科의 創設 역시 新聞研究所의 學問力量을 토대로 하여 可能했던 것이었음을 否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올해로써 創設 20周年을 맞이한 新聞研究所가 우리나라에 커뮤니케이션 科學이 導入된 이래 現在까지의 研究成果와 問題點을 點檢·再照明해 보고, 이를 토대로 向後 社會科學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學이 解決해 나가야 할 課題와 研究方向을 모색하는 이 같은 國際學術 심포지움을 開催하게 된 것을 本人은 무척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祝賀와 聲援을 보내고자 합니다.

부디 이 자리가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새로운 轉機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新聞研究所의 무궁한 發展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83. 9. 1

서울大學校 總長 權 彞 赫